

월간 PIGHEAD LAB

# 피그헤드랩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40호  
2026.1



ISSN 3059-0280

김희진\_ 다시, 갇힌

스물일곱번째 원고

한량윤씨\_ 꿈꾸는 사람

일곱번째 원고

김혜현\_ 매일의 나를 구원하는 법

다섯번째 원고

오종원\_ 캠핑, 그 참을 수 없는 도피에 대하여

서른일곱번째 원고

이채연\_ 새해 인사와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림

서른여섯번째 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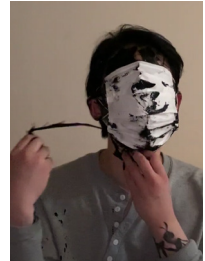
조은영\_ L♡보ME 칼럼 1. 맛의 이름, 이름의 맛

첫번째 원고

## 다시, 갇힌

김 희 진

노동자



오물 안에서 겨우 꺼내놓고 억지로 육조에 처박아놓은 이에게 붙인 성자라는 말부터 이미 구역질이 난다. 그 자는 늘 확보와 배분과 운영의 말투를 갖고 상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우악스럽게 입안을 밀고 //위생// 처리해버려서, 말이 나올 때마다 혀가 아니라 그것이 굴리는 활자가 먼저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동굴 속 그림자가 중력을 거슬러 수중의 압력을 따라 산다는 말이 그래서 차라리 더럽게 아름답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자유가 가벼운 날갯짓이 아니라 짓눌림에의 인정으로 나타나고, 과장되게 부푼 옷과 그것에 달린 가시의 형태를 빌려 위협적인 등껍질을 내비치겠다는 말이, 사실은 위협을 포기했다는 선언이 아니라 위협을 제도가 있는 쪽으로 이관했다고 간주하는 떳떳한 마음의 고백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신은 누가 자주 위계를 벗어난다고 말하면서 위계를 벗어나는 척하는 절차를 먼저 마련한다. 위치/관계라는 단어가 입안에 붙는 순간부터, 당신이 이미 관계를 서류로 만들고, 행정화된 관계는 평등과 같은 포스터 아래로 들어가서, 그것의 접착제 냄새로 사람들의 호흡을 하나로 만들고, 곧바로 누구도 놓칠 수 없다는 식의 문구로 굳어 붙는다. 그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경계의 단속이고, 시선을 입자 단위로 규격화한다. 그래서 야생마의 앞발과 뒷발이 함께 들린다는 묘사는 달리기가 아니라 감시의 포즈처럼 보이고, 해양 속의 조개가 입을 뒤로 벌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해방이 아니라 방향을 강제로 바꾸는 신체의 정책처럼 느껴진다.

이 선을 넘으면, 내 머리 뒤랑 허벅지에 자유로운 문양이 그려진다고 말했지. 그런데 그렇게 자유는 문양으로만 남는다. 문양은 피부의 장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승인 도장처럼 그렇게만 남는다.

그리고 저번에 지나가듯 남긴 말이. 씨앗이 동굴 안에 박혀 있는데, 그는 맞으면서 그것에 쾌를 느낀다고. 당신은 그걸 쾌락이라고 불렀다. 그때 깨닫기를 당신은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쾌락의 모양을 빌려서 순종을 만지고자 욕망한다. 씨앗을 씨앗으로 살거나 죽도록 두지 않으니 씨앗을 다듬고, 손톱으로 긁고, 겹겹질을 얇게 만들고, 겹질 밑의 물기만 남기고. 그러면 형크러진 그것은, 씨앗은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눌린 방향으로만 자라는 것을 알지. 당신은 그걸 여건이라고, 불식이라고, 균형이라고 부르지. 말은 반듯하지만, 그것은 동굴에서 특히 더 냄새가 난다.

그래도 당신은 표정을 관리하려고 토양을 만진다. 가면을 덧쓰고 거름을 뿌리고 그것이 또 코를 태워. 그러니 토양이 생명인 적이 별로 없지. 불이 타는 게 아니야. 말투가 탄다. 말투가 연기야. 동굴에 연기가 차면, 그림자가 더 짙어지지. 그 짙어짐을 내가 자연의 이치처럼 꾸민다. 다 그렇게 되어도 남는 게 그 냄새. 매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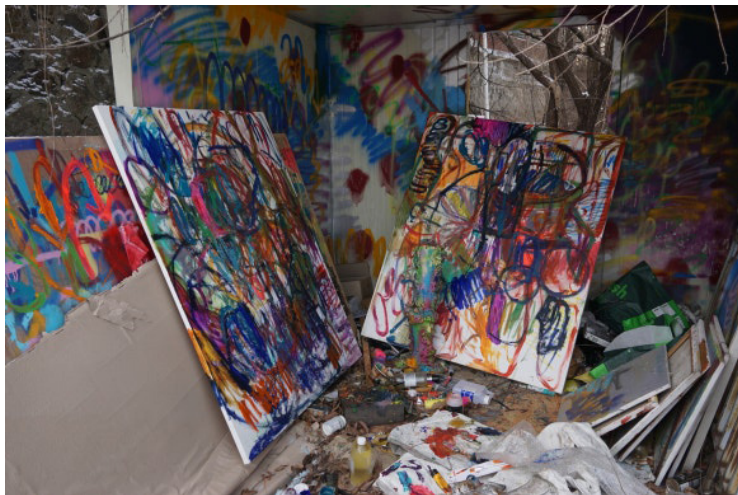
에, 나는 계속 동의라는 청유에 걸려 여태 넘어져있다. 동의는 차라리 선택이라기 보다 문턱과 같은 것. 살아있는지 숨어있는지, 들숨을 남겨두었는지 이미 다 써버렸는지를 심문하는 낮은 재판대. 그 앞에서 늘 몸을 다 써서 서지 못한다. 과잉이라서 배제되었고, 남는 것이 아주 일부다. 손끝, 발끝, 한 번 머문 시선, 멈춰한 스크롤, 새벽의 접속. 그 일부가 그럴듯한 증거가 된다. 그것이 말을 원하니 나는 떠밀려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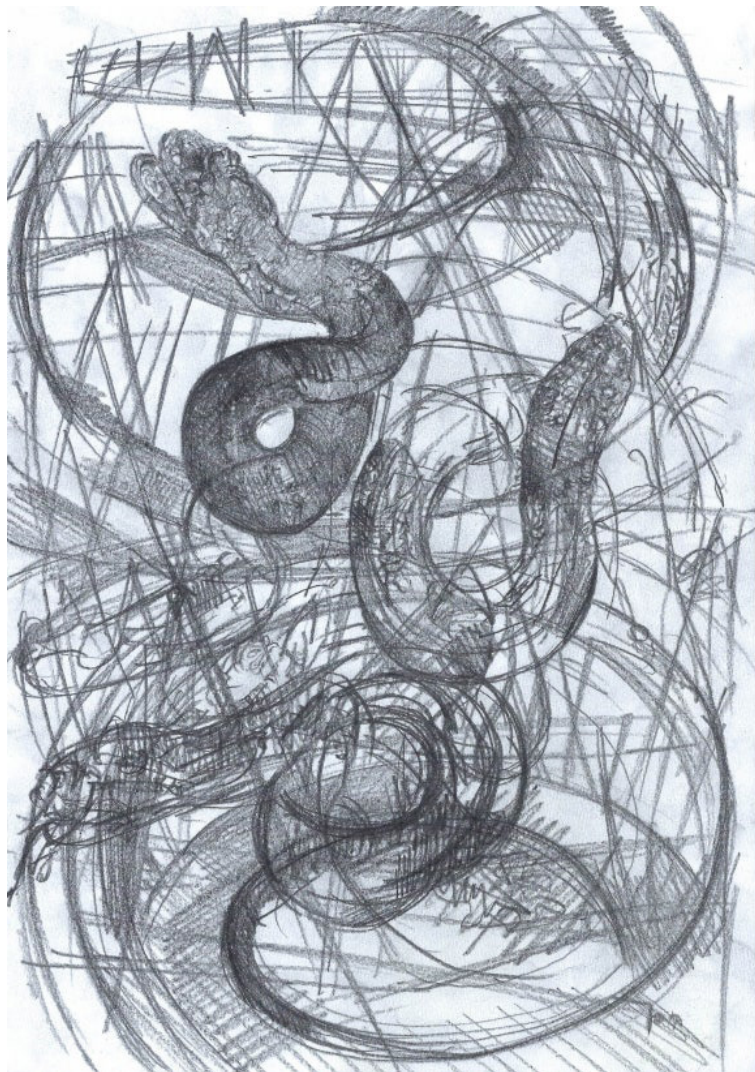
화면은 보여준다기 보다, 되비추는 방패에 더 가깝다. 다시, 방패는 거울에 가까운 얼굴로 그 호명을 거부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당신의 반응을 먼저 고르고, 당신의 실루엣보다 당신의 패턴을 먼저 감각한다.

인간이 쓰는 장비를 대개 도구/기계/기구로 나누고, 개중 기구(Apparat)는 노동의 목적을 띤 도구라기보다 프로그램을 따르는 유희의 장치라 말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기구는 유희를 가장해 노동을 짜낸다. 게임으로 보이도록 설계된 접속은 실제로 채굴에의 통로다. 망설임도 채굴되고, 너의 새벽도, 관심도, 이미 지난 발화도 채굴된다. 여기서 자유가 실은 가장 값싼 장식이 된다.

이 거울에 비친 인형의 얼굴이 그 자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도 흥미롭지만, 인형 주제에 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그래서 부조화를 부르고, 의심이나 왜곡으로 덮어씌운 다음 모르는 척 발뺌할 때에도, 이미 난처한 내 모습을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는 흥미로운 것이다. 🐷









# 꿈꾸는 사람

한량윤씨  
게으른 창작자



“어느날은 그래. 우주같이 캄캄한 바다 한 가운데에 그냥 노를 젓고 있어  
어떠한 방향인지 모르면서 하찮을 정도로 깨작깨작 노를 젓고 있어.  
그렇게 팔이 아프면 허공을 바라보며 바람을 맞다가, 다시 휘저을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생기면 또 똑같이 노를 저어보는데 결국,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지.”

“밤에, 눈을 감고 가만히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려 보면 까마득한 미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한 나는 어느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을 때가 있  
어..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마다, 정말 세상에 태어나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외로움에 휩싸여  
뒤통머리가 따끔거려..”

내가 하는 작업에 아무도 시작과 끝을 알려주지 않았다.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인 일이다.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금방 쓰러져 버릴 것 만 같았다.

그래서 시골집을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1.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업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고, 구독자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집을 고치는 채널이 보통의 경우, 기술적인 팁을 알려주거나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소개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나의 채널은 기본적으로 좌충우돌, 실수 연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나가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 둘 씩 댓글로 조언을 해주신다. 나의 추측이지만, 반대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나서는 분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 같다. 간혹 질책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엔 응원이 더 많다.

hanryang



\*한량윤씨 유튜브 채널 QR

채널이 커지려면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거꾸로 콘텐츠를 위한 작업을 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자체로서 엄청나게 큰 원동력이 된다.

## 2. 마음을 기록하고 작업을 안도하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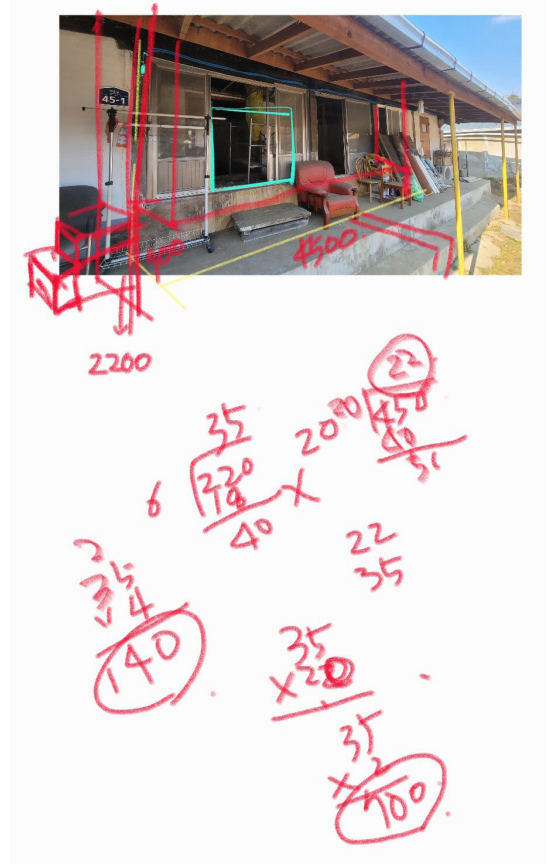
특히 남에게 보여줄 글을 쓰는 것은 퇴고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에게도 가장 추상적이지 않은 형식의 매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된 글을 읽을 때에는 마음의 안도감이 느껴질 때도 있다. 글쓰는 과정은 마치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처럼 기록과 동시에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매달 나의 원고를 받아주고 엮어주는 오종원 기획자님(피그헤드랩)에 매번 감사한 마음이 든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시골집을 리모델링하여 갤러리가 어느 정도 완공에 가까운 단계가 되었을 때, 그동안 써왔던 글을 정리하여 나만의 책을 한 권 만들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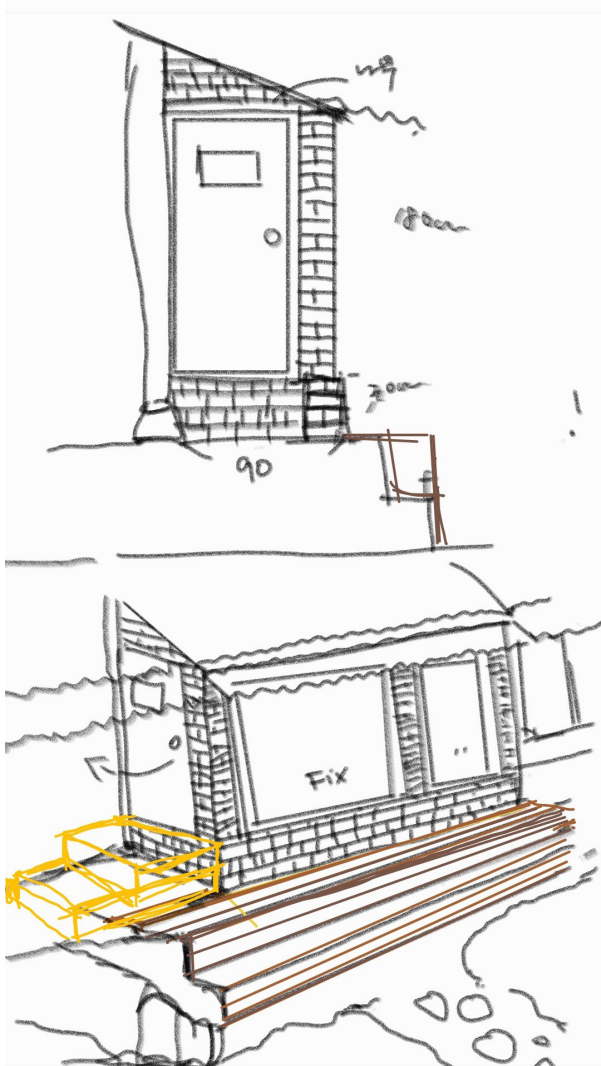


### 3. 설득은 말보다 그림으로

이것은 순전히 ‘필요에 의한 그림’ 이었다. 나는 그동안 그림을 이렇게 언어적 수단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가끔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말로 하는 것 보다, 그림으로 보여줄 때가 한 번에 와닿을 때가 많다. 공간을 깊이 생각하고 다음 스텝에 필요한 일들을 계획하는 것은 주로 내가 하는 스케치에서부터 시작된다. 보통 현장에서 길이를 측정하거나 사진을 찍어 바로 스마트폰으로(삼성 노트20을 쓰는 사람들 중에 나만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스케치를 한다. 스케치는 단순하지만 일을 함께 도와주는 남편이나 가족, 목수님들에게 이미지 하나로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나 스스로 설득하고 조율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증축 전, 필요한 벽돌 계산한 메모



\*증축을 했을 때 예상되는 현관의 이미지



\*철거 후, 부엌 사진위  
에 인테리어 스케치

“너는 드리머야, 꿈꾸는 사람.. 내가 그림을 그리면 내가 이룰수 있게 도와줄게”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부터 예술가였다고, 남편은 나랑 살아가려면 애초에 현실적인 부분은 본인이 짚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렇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기술까지 없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작업을 하고 있던 걸 생각해보면 그 모든 뒷감당은 남편이었다.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상당 부분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아 왔다. 비록 중간 중간 의견충돌로 다소 격렬한(?) 언쟁도 오고 갔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굳건한 관계로 성장하게 되었다.

2024년 9월에 시작한 작업은 시즌1, 시즌2를 지나, 벌써 시즌3까지 진행이 되었다. 시즌1에서는 시골집에 대한 이야기와 추억,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시즌2에는 철거, 조적, 증축, 미장 등, 다양한 작업에 대한 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집중했다.

그동안 작업한 것들을 토대로 2026년에는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입혀갈 수 있을지 사실 내심 기대가 된다. 마침 기분이 좋게 새해가 되자마자, 한 디퓨저 회사에서 협업 제안이 왔고, 처음으로 유료광고를 받아 촬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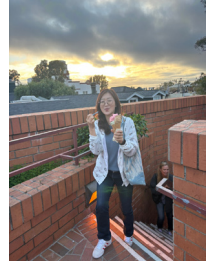
시즌3을 시작하면서 올 해의 목표는 집을 완공 하는 것 이지만, 사실 결과물 보다 과정에서 이전 시즌보다 더 풍부해진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싶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꿈만 꾸는 것’이 아니기를, 빌며 새해를 소망해본다. 🍀

# 매일의 나를 구원하는 법

김 혜 현

4년차 갤러리스트



크리스마스이브날에도 일을 하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토요일에도 일을 했다. 2025년 미국에서의 첫 파트타임 잡을 마무리하고 연말연시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게 되었다. 새해가 왔고, 특별한 일 없이 한 달이 흘렀다. 삼시 세끼를 챙겨 먹고, 가족들과 수다를 떨고, 아침에는 눈을 뜨고, 밤에는 잠을 잤다.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게 매일이 똑같이 흘러갔다. 한 달이 흘렀는데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내 몸은 별로 움직일 일이 없어서 많이 무거워졌다. 일은 6개월만 쉬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몰려왔다.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내 모든 미래의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미국의 1월은 학생들이 짧은 방학을 마치고 바로 개학하는 시즌이다. 아이들은 1월 첫 주부터 학교를 간다. 우리 집은 스쿨버스를 타는 시간이 다 달라서 아침 6시 30분에 초등학교생인 막내가 집을 나서고, 7시 반에는 고등학생 두 명과 남편이 집을 나선다. 나는 6시에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 아침을 챙겨준다. 처음 미국에 와서 아이들 점심 도시락을 매일 두 개씩 싸다.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해서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5시 40분에 일어나던 것을 6시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식성이 다 다르고 체질이 달라서 아침도 여러 종류로 준비해야 한다. 직접 챙겨 먹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분명 지각을 하게 되어 내가 태워줘야 하는 귀찮은 일이

발생한다. 나가는 것보다는 아침을 챙겨주는 게 더 낫다. 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 빵을 먹어야 하는 아이, 치즈나 유제품을 못 먹고 입맛이 지극히 까다로운 아이, 그리고 아무거나 먹으면 먹어야 하는 약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남편. 요리를 못하는 나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나면 설거지도 엄청 해야 한다. 사람들은 내게 왜 한 가지 음식으로 통일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람들의 식성은 제각각이고 함께 평생을 지내온 가족이라 해도 통일하기는 쉽지 않다. 집은 사회생활과는 좀 다르다.

일찍 자면 좋겠지만 나는 늘 밤 12시가 되어야 잠에 든다. 저녁에도 할 일이 많은 편이고, 한국의 전시 관련 일도 저녁 시간에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침잠이 부족하니 나는 어떻게든 가족들이 7시 반에 나가면 다시 자러 간다. 요즘은 잠에서 위안을 찾는 편이다. 아침 일찍 운동도 하고 공원도 가고 다양하게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정도 잠을 푹 자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요즘 영어 낭독 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은 로이스 로리의 『The Giver』이다. 이 책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족들과 전날 밤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정해져 있다. 꿈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욕망이나 감정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인 조나스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친한 여자친구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을 이야기하고 성욕을 방지하는 알약을 매일 먹어야 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성욕을 느낄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조나스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나스의 무의식은 원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꿈에 관한 무의식의 욕망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나는 정말 내 마음을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일까? 나도 종종 꿈을 통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을 때가 있다.

내가 특별히 꿈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칼 융의 『레드북』을 책 모임에서 석 달 넘게 낭독한 적이 있었는데, 그 즈음인 것 같다. 『레드



북』의 시작은 융이 몇 번에 걸쳐 꿈 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융은 환상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일은 1913년 10월에 일어났다. 내가 홀로 어떤 여행을 막 떠나려 할 때였다. 그날 나는 환한 대낮에 별안간 어떤 환상에 사로잡혔다. 무서운 홍수가 보였다. 북해와 알프스 산맥 사이에 있는 북부의 낮은 땅을 모조리 삼킨 홍수였다. 홍수는 영국에서부터 러시아까지, 북해 해안에서부터 알프스 산맥까지 넘치고 있었다. 나는 누런 물결과 물에 떠내려 오는 파편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다. 이 환상은 2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다. 나는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다. 2주일이 지난 뒤 그 환상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포악했다. 나의 내면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그걸 잘 봐. 그건 완전히 현실이야. 그 일이 일어날 거야. 그 걸 의심하면 안 돼.” 나는 다시 2시간 동안 이 환상과 사투를 벌였다. 환상이 나를 단단히 물고 늘어졌다. 나를 지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러다 미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줄곧, 우리 앞에 서 있던 그 무서운 사건에 대한 불안이 거듭 나타났다. 언젠가 나는 북쪽 땅 위로 피의 바다를 보았다. 1914년 6월 초와 말, 그리고 7월 초에 나는 똑같은 꿈을 세 번이나 꾸었다. “ 융의 꿈속에서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는 놀라운 말을 했다. 융의 꿈에 관한 언급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융이 전해들은 어떤 말에 있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가르침도 절대로 아니고 교육도 절대로 아니다. 무슨 근거로 내가 감히 당신을 가르치려 하겠는가? 나는 당신에게 이 인간의 길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당신의 길에 관한 소식이 아니다. 나의 길은 당신의 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 길은 우리 안에 있다. 신들에게도 있지 않고, 가르침에도 있지 않고 법에도 있지 않다. 우리 안에 그 길과 진리, 생명이 있다. 본보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들에게겐 생명이 없다. 본보기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본보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의 삶을 살겠는가? 그러니 당신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하라. (중략)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길이다. (중략) 법을 제시하고, 향상을 바라고,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모두 그릇되고 나쁜 짓이다. 모두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 공동체 안에서 상호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들의 유사성과 공통성을 보고 느낄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존엄을 부여하고 서로가 따로 서 있게 하라. 그러면 각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동료애를 느끼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권력은 권력에 저항하고, 경멸은 경멸에 저항하고, 사랑은 사랑에 저항한다. 인간성에 존엄을 부여하고, 생명은 언제나 더 나은 길을 찾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라. 신의 한쪽 눈은 보지 못하고, 신의 한쪽 귀는 듣지 못한다. 신이라는 존재의 질서는 카오스의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 세상의 불완전성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것이며, 세상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과대평가 하지 않도록 하라.”

융은 꿈을 통해 가까운 미래를 살펴볼 수 있었고, 그 일들에 대한 당혹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얻었다. 나는 깊은 곳의 정신인 내면의 목소리가 융에게 해 준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사람들에게 존엄을 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정말 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동시에 간절한 바람이 나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 융은 자신의 마지막 저서 『인간과 상징』에서 꿈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꿈을 다루는 데에는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 첫째로 꿈은 하나의 사실로 간주해야 하며, 꿈이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말고는 어떠한 전제도 달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둘째로, 꿈은 무의식의 고유한 표현이다.”

인간의 무의식이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꿈 그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도 인간에게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잠을 통해 자아는 혼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했다. 또한 잠을 통해 영적 존재들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감을 준다고 했다. 모든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야기들에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인간이 홀로 이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나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

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줄여 가며 일을 해왔다. 자주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느껴졌다. 특히 내 정서적 불안감은 혼자 싸워서 이겨내야만 한다는 고집에서 기인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흥미로운 꿈을 자주 꾸었는데, 매번 그 꿈들은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지만 정작 나는 그 꿈들을 너무 가볍게만 여겨왔다.


잠과 꿈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은 이후로 나는 잠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다. 잠을 줄여야 하는 날이 있다면 그다음 날은 꼭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잠을 통해 나의 의지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어린 시절 시험 전날 자기 전에 외운 영어 단어가 그다음 날 아침에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경험처럼, 잠은 내게 중요한 에너지가 되었고 생각들을 정리해 주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싶은 꿈들은 바로 지나치지 않고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026년에는 원희제 작가의 초대전을 준비 중이다. 작가님과 꽤 긴 시간 동안 칼 융의 책과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을 함께 읽어왔다. 작가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꿈에 관한 소재들은 내게도 익숙하다. 꿈은 곧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시각적으로 구현해 내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꿈을 꾸 사람이 직접 그림을 그려 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타인의 꿈도 들여다볼 수 있다. 원희제 작가의 그림을 통해 나는 종종 꿈을 함께 볼 수 있었다. 꿈은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잠에서 깨어난 이후 그림을 통해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진 것 같다. 작가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물건들은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칼 융은 개인이 꿈을 통해 발견한 상징이 인류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 개인만의 고유한 상징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부분에서 융은 프로이트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요즘 나는 매일 잠들기 전 어떤 기대감을 안고 잠에 든다. 가끔은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 날도 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생생했던 꿈들이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하면 자꾸 기억에서 흐릿해진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닌 것이라서 그렇겠지. 어쩌면 꿈속의 세상이 또 다른 실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마주하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할 때가 있어서 그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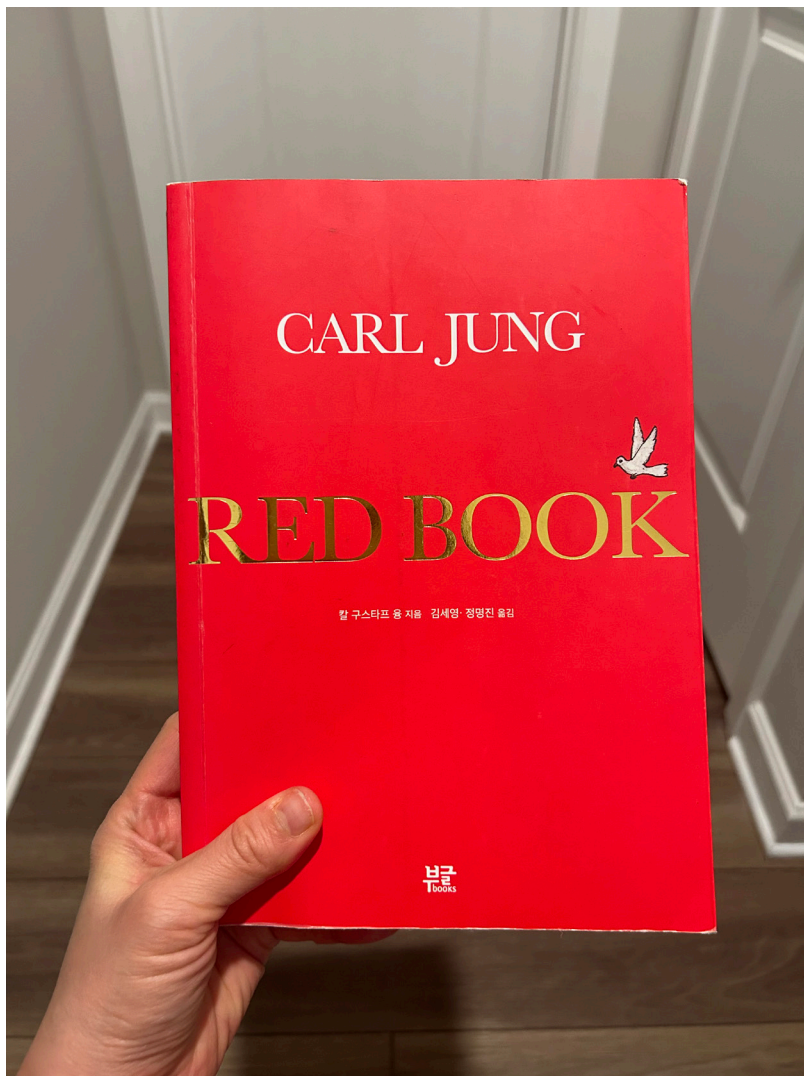
지금 미국은 피부색과 어눌한 말투, 그리고 사는 지역에 따라 유색인종이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어 스크리닝을 당하는 상황이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이 미국에서 언제까지 불법 이민자 타령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나는 이민자도 아니고 그저 잠시 거주했다가 돌아갈 이방인일 뿐이다. 철저히 관찰자일 뿐인데, 매일 보는 뉴스와 들려오는 소식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절망감을 준다. 존엄 따위는 사라지고, 총을 겨누고 욕을 서슴지 않으며 서로의 마음과 몸에 상처를 주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 지금의 인류는 지구를 벗어나려고 무수한 위성과 로켓을 쏘아 올리지만, 정작 지구라는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미션도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허울뿐인 진보는 우주로 나가 봤자 더 큰 허무함만 주지 않을까.

원희제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하나같이 현실 속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작가는 끊임없이 꿈을 꾀다. 나와는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다. 내가 늘 작가의 작품 앞에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예술가들은 우주로 나가지 않고도 우주를 품어내는 사람들이다. 



원희제\_pink sofa  
2023







## 캠핑, 그 참을 수 없는 도피에 대하여



오 종 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최근 캠핑에 빠졌다. 갑자기 캠핑이라니. 캠핑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 “왜 집 놔두고 밖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에는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환절기만 되어도 골골거리는 데다 약간의 수면 장애까지 있어서 환경이 바뀌면 잠을 잘 못 잔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도, 손이 야무진 타입도 아니라 뭔가 푹푹딱딱 해결하는 타입도 아니다. 써놓고 보니, 사실 그렇게 캠핑에 적합한 인간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까지 캠핑지를 알아보는 나를 보며, 어제의 캠핑은 어떠했는지 메모해본다.

어제도 안성으로 겨울 캠핑을 갔다 왔다. 서울이 너무 추워서 조금이라도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라고 했음에도 안성은 햇볕이 좋았다. AI에게 물어보니 분지 지형이라 바람이 적다고 한다. 이곳도 AI가 추천해준 곳이다. 햇볕이 나지막이 드는 산 덕분에 캠핑장이 있었다. 차 안에 가득한 캠핑짐들이 흔들거리며 캠핑장에 도착하였다.

차 안에는 캠핑 짐이 가득하다. 캠핑에 빠져들면 기변 하다가 차도 바꾸게 된다는데, 다행히 내 레이는 우리 두 식구에 캠핑짐을 싣고도 나름은 여유가 있었다. 일단 텐트부터 꺼내서 치기 시작한다. 날씨가 춥다 보니 텐트를 치고 빨리 난로를 켜서 데워 놔야 한다.

텐트는 두어 번 치고 나면 어느정도 숙달된다. 둘이서 텐트를 치는데 20분 정도면 푹딱이다.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 에어 텐트라는 게 나와서 공기만 넣으면 알아서 설치가 되는 것도 있다지만, 나는 어느정도 아날로그 스타일이라 폴대를 넣어 설치하는 클래식한 텐트가

## 40. 2026.1

좋다. 내 텐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설치가 쉬운 편이다. 다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게 예쁜 텐트들이 참 많아서 간간이 마음이 혹하고는 한다.

당연하겠지만 겨울에는 난로를 써야 한다. 나는 지금 등유난로를 쓰고 있다.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난로를 썼을 때는 깍해야 학창시절, 교실에는 LPG가스 난로가 있었다. 등유난로를 썼던 것은 내 앞 세대, 부모님 세대였기에 멀게 느껴졌었다. 그러나 한번 써보고 나니 지금까지도 등유난로가 나오는 이유를 알겠다. 이만한 화력이 없다는 것이다. 텐트 안에 난로를 피우면 열이 확 올라서, 난로 상부에 온도계를 두면 30도 이상 오르고는 한다.

처음 겨울 캠핑을 하였을 때 난로를 사용할 줄 몰라서 시꺼먼 연기를 만들고는 하였다. 그러나 몇 번 켜봤다고 이제는 수월하게 켜다. 연료통을 등유로 가득 채우고는 라이터로 몇 번 불꽃을 튀기면 주홍빛 불빛이 화악 하고 일어난다.

설치와 관리가 편한 내 텐트.  
하지만 요즘 들어  
예쁜 텐트가 끌린다.





이란. 난로에 불을 지피면서 막연히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 해가 떠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텐트는 까만 색이라 설치하고 나면 많이 어둡다. 살짝 동굴 같은 기분. 사람 욕심이라는 게, 처음에는 잠만 자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덧 밝고 화사한 텐트를 이것 저것 보게 된다.

이 열을 텐트안에 골고루 잘 퍼뜨리는 게 캠핑의 기술이다. 아직 겨울 캠핑이 두 번째인지라 요령이 없어서, 난로를 여기에 뒀다 저기에 뒀다, 잠자리를 여기에 펼쳤다 저기에 펼쳤다 실험하기에 바쁘다. 근데 이게 노동이기보다 묘하게 재밌어서 실험 같은 느낌이다. 어떻게 하면 이 방(텐트 안)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겨울 캠핑의 백미는 난로를 켜면서 눈 구경하는 것이라고 한다. 텐트에 투명 비닐창을 달아 안에서는 난로를 피우고 밖에서는 눈을 내리는 것을 구경하는 것. 지난번 캠핑 때 자고 있을 때 눈이 내린 적이 한번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 하얀 설경을 마주한 기억이 꽤 좋았는데 잠자리 밖 다섯 보 앞에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설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내 따뜻한 텐트 안에서 보는 기분

처음에는 조금만 더 넓었으면, 조금만 더 밝았으면 했던 것이 방이 여러 개인 것, 인디안 텐트 모양인 것, 설치하기 용이한 것, 에베레스트에서 볼 법한 디자인인 것 등 다양하고 예쁜 텐트에 욕심을 내본다. 한번 맛들이면 이래저래 텐트를 많이 수집하게 된다고 하더라. 마치 그림 속 산야의 나지막한 오두막처럼 나의 오두막도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다.

그것은 과시욕이기보다 나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싶어하는, 내 등지를 어여쁘게 꾸미고 싶은 수컷 새의 마음 같은 것일 테다. 반짝이는 무엇인가도 달아보고 깃털로 따뜻한 자리도 마련해보고. 그래서 으리으리한 모양새가 아닌 아늑하고 편안한 이미지가, 누구라도 들어와 보고 싶은 그런 터전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이제 내부를 채울 차례이다. 먼저 접이식 의자를 펴서 일단 앉고 시작한다. 가구라고 해봤자 별 것은 없다. 이것은 사람의 성향마다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예쁜 가구와 장식으로 텐트 안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처럼 적당히 심플하게만 구성해놓는 사람도 있다.

내 경우에는 의자 두개와 테이블, 랜턴을 걸기 위한 선반 정도가 끝이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도구 상자에서 꺼내어 쓰는 편이다. 아 그리고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있다. 바로 모닥불. 화로를 꺼내어 나름 능숙하게 조립을 해본다. 나는 캠핑 때마다 화로를 안한적이 거의 없다. 불 지피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

나무를 적당히 포개 놓고 촉매제를 던져 놓으면, 조금 있으면 나무에 불이 스멀스멀, 그러나 느리지 않게 올라온다. 잠깐 매캐한 연기가 일고 얼마 걸리지 않아 적당한 모닥불이 오른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나무 굵는 향이 일렁인다. 모닥불 앞으로 의자를 옮겨놓고 맥주를 한 캔 깬다. 따각! 맥주의 거품이 솟아 오르면 재빨리 훅 하고 한입 마시면 바로 이 맛이다.

여름에는 한낮부터 불을 지피는 게 더워서 부담스럽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자리만 잡아놓고 바로 불을 지필 수 있어서 참 좋다. 저녁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을 생각이었지만 마쉬멜로를 꺼내어 꼬지에 쫓는다. 불 위에 몇 번 쓱쓱 하기만 해도 살짝 그슬린 달콤한 마쉬멜로가 완성된다. 곧 저녁을 먹어야 하니 두개 정도만 먹고 감칠맛을 살려놓는다.



캠핑 유튜브를 보다 보면 누군가 댓글로 적어놓는다. 먹으려고 캠핑 하냐고. 캠핑 콘텐츠를 보면 식사를 만들어 먹는 장면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 텐트를 치고 내부를 장식하고 잠깐 시간을 때우다 보면 금방 저녁먹을 시간이다.

보통 캠핑장을 두 세 시쯤 입실하고 나면 텐트 치고 내부를 장식하고 허리 한번 펴고 나면 두어 시간이 딱딱 지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덧 오늘 저녁 먹을 것을 슬슬 준비하게 된다. 야외에 나와서 그런지 유독 배가 더 고프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나는 주로 고기를 굽는다. 캠핑을 떠날 때면 미리 고기를 준비하고는 한다. 내 일행의 경우 평소 고기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캠핑장에서 구워 먹는 고기는 꽤 잘 먹는다. 캠핑을 막 처음 하다시피 하였을 때엔 둘이서 삼겹살 1kg 가까이를 먹어 치운 적도 있다. 모닥불에 피운 고기가, 조금은 재도 묻고 탄 부위도 있지만 나무향이 잔뜩 배인 오리지널 바비큐가 맛이 없을 리가 없지.



화려할 것도 없다. 먼저 준비한 그릴에 고기를 몇 쪽 끼워 넣는다. 그리고 바비큐 장갑을 끼고 화로 위로 올린다. 모닥불을 조금 꺼뜨려 숯으로 만들어 굽는 게 더 안전하기는 한데, 자연 숯불은 불 조절하는 게 일이기도 하고 또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르륵 올라오는 불꽃으로 굽는 직화구이가 더 맛있는 것 같다. 가끔은 불에 데기도 하고 고기를 불꽃에 돌려가며 구워야 하니 팔도 아프지만, 언제 또 이렇게 직접 불로 익힌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거진 다 익었다 싶으면 소금과 후추로 간만 살짝 낸 다음, 접시 위에 가위로 뭉텅 뭉텅 썰어놓는다. 기름기가 짙도는 직화 구이 삼겹살이 기름과 열기를 뿜어내지만 그대로 한입 입에 물면 입안에서 폭발하듯 맛이 터진다. 서늘한 공기와 야외의 풍경이 조미료다. 여기에 소주 한잔을 쪽 들이 키면 완벽하다.



두둑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면 금세 어둑해진다. 대체로 캠핑장들은 일찍 어두워지는 편이다. 아마 도심지의 불빛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 해가 지는 기색만 있어도 금방 어두워 지는 것이다. 술술 먹은 자리를 치우고 화로가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놔둔다. 평소였으면 불명으로 좀더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영하 10도라는 온도가 해가지니 강하게 와닿는다. 너무 추워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모닥불은 알아서 꺼질 것이다.



다시 등유난로에 몸을 굽힌다. 텐트 한 칸 틀어 놓은 라디오에서는 배철수 씨가 마무리 멘트와 함께 엔딩 송을 틀어준다. 아이스박스에서 조미오징어를 꺼내 난로 위에 올렸다. 그리고 다시한번 맥주 한 캔 더.

등유난로는 이게 참 좋다. 따뜻하기도 따뜻하지만 난로 위에 무엇인가를 올려놓을 수 있다. 평소라면 주전자를 올려서 물을 끓여놓는다. 그 물을 꼭 다 마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난로 위의 주전자가 김을 내뿜는 풍경은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고구마를 올려서 구워 먹은 적도 있다. 캠핑용 프라이팬에 이것 저것 올려놓고 구워 먹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다. 오늘같이 오징어를 구워 먹을 때도 난로의 열기면 차고 넘친다. 포근한 느낌이다.

그렇게 난로 안에서 작게 춤을 추는 불꽃을 보며 조금 느릿느릿 대화를 나눠본다. 그러고 나니 텐트를 칠 때부터 지금까지 굳이 핸드폰을 볼 일이 없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캠핑이라는 게 노동이라는 느낌보다는 소소하고 즐거운 잔일들 같아서, 이래저래 몸을 움직이고 나면 하루가 딱딱 가 있다. 소꿉놀이 같은 장난질 느낌도 난다.

평소였으면 집이든 회사든 어딘 가에서 모종의 불안함과 함께 키보드를 따닥 거리고 있을 것이다. 월간 피그헤드랩의 원고도 완성해야 하고 필진들도 독촉해야 하고, 또 내 개인 자료도 정리해야 하고, 살짝 비밀이지만 요즘엔 이지도 고민하는 지라 이곳저곳도 살펴봐야 하고. 괜히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켜서 의미 없는 인터넷 창을 열거나 카톡에 쌓인 메시지들을 읽어 내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캠핑에 빠지고 있다. 특히 이 포근한 느낌의 겨울 캠핑이 참 좋다. 매 계절, 매 상황마다 다양한 재미들이 있겠지만, 이 때만큼은 조금은 알뜰알뜰한 느낌으로 난로와 함께 잠에 들 수 있음이 참 좋다. 🐷



# 새해 인사와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림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득돈\_2025, 종이에 목판,  
10x10cm

2026년 첫 <지금 이시각>은 내 그림으로 새해인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로서 작업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그림은 사람들이 좋아 할 만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소개할 작품은

제목은 <득돈>이고, 목판화로 작업하였다. 강원도 정선 장서표를 전시하기 위해 작업한 것으로 예전에 정선에 여행 갔던 경험이 모티브다. 여기서 '장서표'가 뭔가 싶을 것이다. 그렇게 잘 알려진 분야는 아니니 말이다.

장서표란

책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작은 예술작품이다. 동양에서는 도장형태의 장서인을 찍었고, 서양에서는 종이에 새긴 판화를 책에 붙였다. 일반적으로 5-10cm 정도 크기의 판화로 제작된다. 보통 라틴어 'EX-LIBRIS' 표기가 들어간다. ~의 책에서 라는 뜻이며, 책 소장자의 이름과 함께 쓴다. 영어권에서는 Book Plate라고도 쓴다. 여기에 소장연대와 책의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글을 적어 넣기도 한다.

장서표는 책과 함께하여 기능하였으나, 현재는 독립된 판화예술의 한 장르로 발전하였다. 전시가 목적이 되거나, 수장 또는 수집되기도 한다.

나의 장서표 작업은

나를 상징하는 도안과 함께, 책과 함께 이루고 싶은 희망을 담고 있다. 부적처럼 붙이는 장서표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공부 하자, 돈을 벌고 싶다 와 같은 세속적인 소망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책에다가 현실적인 목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책을 옆에 두고, 책과 책주인이 시너지를 내는 삶이 되기를!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한대로 정선여행에서 갔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가졌던 생각을 표현하였다. 혹시 못 알아 볼 까봐 말하자면, 그림 중앙에 둥근 원반 같은 것들은 카지노 칩이다.

만약 카지노에 간다면, 많은 사람들은 바랄 것이다.

여기 이곳, 이 순간에 큰 행운이 나에게 오기를!

내가 아는 돈이 생기는(득,得)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열심히 일한다
2. 돈을 버는 방법을 공부(독서) 한다.
3. 행운(복권, 도박 등)이 온다

세번째 행운으로 돈이 생기는 방법의 그림이다.

그림에 ‘득돈’ 이라고 크게 써 있다. 여기서 ‘득’은 얻다의 뜻을 가진 한자 ‘득’(得)이고 ‘돈’은 우리가 절실히 바라고 좋아하는 ‘돈’이다. 즉 ‘돈을 얻다’는 뜻이다. 득돈.....말 그대로 돈이 생긴다면 너무 좋지 않겠는가? 근로소득이어도 좋지만, 길을 가다가 동전을 주워도, 어쩌다 한 설문조사에서 커피 쿠폰이 당첨 되어도 너무 좋다. 웬지 일진이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한다.

꿈자리가 좋아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로또를 산다. 당첨 된다면 돈이 생겨 좋은 거고, 낙첨이면 적은 돈으로 액땜을 하는 것이다. 당장은 당첨 여부를 알 수 없으니 그때까지 상상의 시간을 가져 본다. 당첨되면 어떨까? 일단 내가 가진 고민의 95%정도는 해결될 것 같다. 생각해 보면 고민의 대부분은 돈으로 해결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것을 인정 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 실마리가 있기 때문이다. 로또 1등과 2등을 다 합친 당첨 확률은 0.000086%이다. 가능성이 ‘0’인 셈이다. 그래서 나에게 돈이 생길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내 작품이 후한 가격!에 팔리는 것이다. 이것 또한 일어날

## 40. 2026.1

리 없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까?를 상상해 본다면 잠깐이지만 머리속의 근심들이 줄을 지어 확산되는 것을 끊어주는 행복회로가 생겨 나는 것 같다. 돈은 하루를, 인생을, 사람을, 좌지우지 한다. 사랑이나 건강 같은 가치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모두 2026년에는 ‘득돈’하시를 기원합니다!

+나누고 싶은 일상 이야기

12월에 나는 토스뱅크 앱에서 주는 복권이 2번 당첨 되었다. 첫번째 복권은 로또처럼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6개를 맞추는 복권이다. 당첨도 실제 로또와 같은 숫자로 한다. 6개의 숫자 중 무려 5개를 맞추었다. 3등에 당첨되었다. 그러나..... 당첨금은 2,329원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매우 흥분이 되었다. ‘와! 대박!!!’ 이러면서 들떴었다. 나중에 가족의 말을 듣고 실제 로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당첨금액의 아쉬움 보다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 더 크게 느껴졌었다.

다른 하나는 뽑기 추첨 복권이다. 평소에는 2원에서 7원사이가 당첨 되었다. 갑자기 나타난 100원이라는 숫자! 두둥! 띠용~ 눈이 번쩍 떠졌다. 가족 단톡방에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가족들이 어디서 상이라도 받아 온 것처럼 축하해 주었다.

사실 두 복권의 당첨금을 합쳐봐야 2500원이 안된다. 이 돈이면 과자 하나 왓싸~ 공짜다 하며 사먹을 수 있다. 하지만 한해를 마무리 하며 걸린 복권 당첨은 그간 수고에 대한 보답을 같았다. 마무리 좋으니 왠지 2026년의 운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_\_^





26회차 당첨 번호  
로또와 당첨 번호가 동일해요

1 2 4 16 20 32 + 45

응모한 로또 · 14개

1 2 16 20 32 35 3등  
1288명

**당첨금을 확인해주세요**

당첨금 5만원 초과 시, 제세공과금  
22% 제외

3등 · 1,288명 당첨  
**2,329원**

첫번째 복권

두번째 복권

**8등 당첨!**

축하해요!

오늘 정말 운 좋은 날이네요.

**100원**

## L♡보ME 칼럼\_ 1. 맛의 이름, 이름의 맛



조은영


기획자 / @ dalnurilab

작년 말 피그헤드랩의 오종원 디렉터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인생 최대의 결정을 후딱 해낸 그가 부럽기도 하고, MZ-세대인 그와 어쩌다 닿은 인연이 기획자의 숙제 같은 고민으로 이어져, 그의 땅인 여기서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보면 어떤 해답이 생길 것만 같아 글을 쓰기로 했다. 오디렉터와 나는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영등포의 혼종적 문화에 대한 견해를 글로 주고받으면서 소소한 것들(커피, 막걸리, 아이스크림)을 나누게 되었다. 비록 가상세계의 인연이지만 그 당시 그가 제시했던 동시대의 혼종적 문화를 담을 새로운 프레임에 대한 고민을 나 또한 공감했던 터라, 지난 일년 동안 영등포 지역에서 탐색하며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소소한 답론을 웹진에서 이어가 보려 한다.

국제금융도시 여의도를 마주한 영등포의 신길(新吉)동과 대림(大林)동, 문래(文來)동을 2024년 여름부터 일 년 반 동안 오고 가며, 길림성(吉林省) 조선족 이주민과 고려인, MZ-세대의 핫플레이스인 문래동에서 만났던 새로운 언어적, 문화적 경험은 그 장소에 중첩된 시간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관찰자의 습관 비스무래한 것을 내 안에 만들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반찬인 김치 속에 들어가는 무생채와 중국음식점에서 흔히 먹는 짜사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흔히 맛보는 짜사이는 무가 아닌 갓으로 만든 사천(서남) 지방의 절임 음식이다. 중국어로는 자차이(榨菜, 착채)이지만 한국에선 짜사이로 불리는 이 절임 갓은 수분을 짜내 꼬들꼬들한 식감과 맛, 향이 수분이 가득한 한국식 무생채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자의 菜(채)를 공유한다. '채소를 물에 잠기다'는 의미의 침채(沈

菜)가 어원인 김치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기록된 염지 문화를 기원으로 하면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우리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다. 그것이 임진왜란 이후 아메리카 대륙에서 고추가 유입되면서 맛의 변화가 생겼고 이름도 침채 → 덩채 → 김채 → 김치로 변하면서, 오늘날의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가 되었다. 평생 김치를 먹어도 모를 이런 어원과 유래를 찾아보게 된 것은 문화기획을 하면서다. 이전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소소한 것들의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다 그만한 이유와 어떤 문화적 뿌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삶의 이치를 깨닫는 배움도 기획과정에서 얻곤 한다.

무생채와 짜사이(榨菜)의 맛과 언어적 차이를 거리로 환산한다면 인천에서 쓰촨성(四川省)까지는 비행기로 약 4시간, 2000km 정도의 거리인데 그러한 거리감이 맛에서 느껴진다. 바다가 삼면인 한반도의 수분 그득한 무생채와 2000km 먼 중국의 내륙지방의 짜사이의 식감과 맛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계절성과 지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아삭함과 탱글한 식감에서 느껴지는 미감의 차이가 귀로 전해진다는 사실이다. 이 두가지 맛을 동시에 비교하게 된 건, 영등포 대림(大林)동에 위치한 양꼬치 음식점에서 였다.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염장 음식 두 가지를 작년에 동시에 맛보고, 그 음식점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았다. 그리고 문화 간의 경계에서 새 그릇에 담을 어떤 맛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연한 사회적 갈등과 세대 문화적 차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작 무맛으로 그런 원대한 생각을 해내는 내 발상이 우습지만 이런 사변적인 사실들이 의외로 실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인 것을 다들 한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달누리랩: [dalnuri.vercel.app](https://dalnuri.vercel.app) 



2025년 12월, 강독 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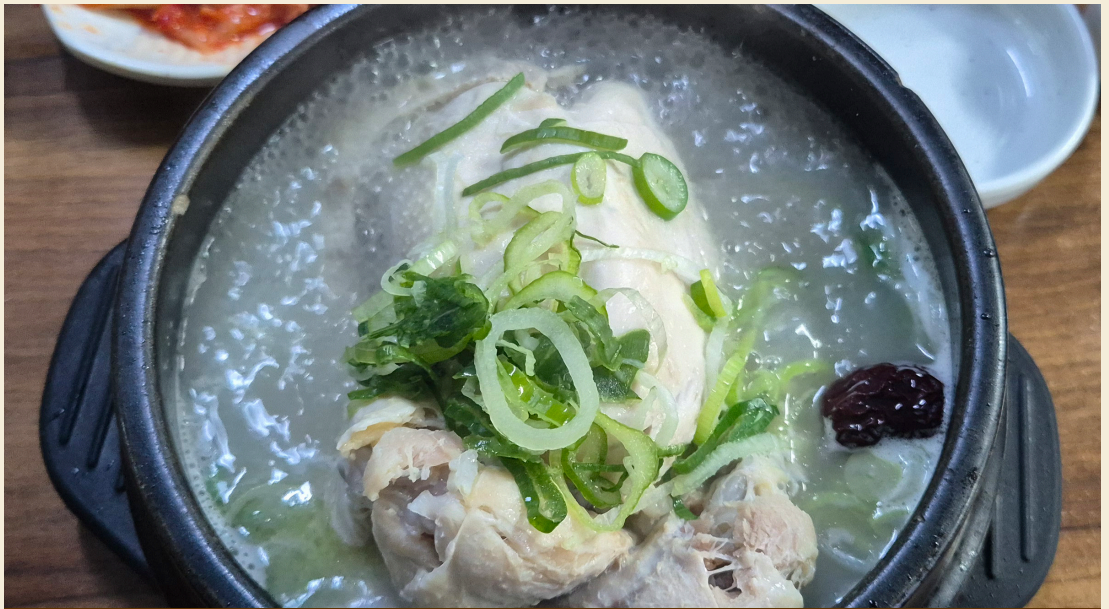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잘 먹지 않던 음식, 특히 과거엔 ‘어르신들이나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끌릴 때가 있다. 나에게도 삼계탕이 그런 음식 중 하나였다. 치킨을 좋아하지만 물에 빠진 닭은 안먹던 시절이 있었다. 이젠 제법 옛날 영화인 <집으로>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치킨을 달라고 하였더니 백숙을 끓여줘서 주인공 손자가 투정을 부리는 그런.

아무튼 근 며칠은 겨울의 한가운데 답게 제법 많이 추웠다. 그럴 때는 따뜻한 국물이 끌리기 마련이다. 삼계탕은 나름 맛집들이 많은 편이지만 나는 낙원상가 근처의 모 삼계탕 집에 한번씩 가곤 한다. 담백하지만 간이 맞는 국물에, 질기지 않으면서 또 너무 풀어지지 않게 적당히 탄력 있는 닭살, 마찬가지로 과하지 않게 채워진 속이 매우 깔끔하다. 혹시나 서울식 삼계탕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려나. 이러한 토속음식은 자칫 너무 과할 수도, 너무 아쉬울 수도 있는데 밸런스를 참 잘 잡았다.

기름이 살짝 뜬 삼계탕 국물에 소주 한잔을 넘기고 나면 속이 매우 따뜻해지는 것이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지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6. 1 / 40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mailto: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 DM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희진, 김혜현, 오종원, 이채연, 조은영, 한량윤씨